

장흥군 석대들에 울려 퍼진 ‘사람이 곧 하늘’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유족회, 지역민 등 500여명 참석
군 “자유, 평등, 배려 실현할 것”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농민혁명의 인내천(人乃天) 정신을 기리는 기념식이 장흥군에서 열렸다.

12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장흥군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일원에서 ‘제130주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남도와 장흥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관했다.

기념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고재국 동학농민혁명



지난 10일 장흥군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일원에서 ‘제130주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식’이 열렸다. 장흥군 제공

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유족회와 학생과 지역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5월11일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지 6주년이 되는 날이다.

기념식은 풍물놀이와 특별공연 ‘사람이 하늘인 세상’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 경과보고, 폐정개혁 12개조 낭독과 기념사, 만세삼창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작업을 하는 박흥규 작가의 판화 체험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참석자들은 동학기념탑으로 자리를 옮겨 헌화와 분향에 나섰다.

김성 장흥군수는 “동학이 가진 인간 평등과 사회 개혁의 외침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동학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자유와 평등, 배려의 가치를 실현해 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월등초 학생과 ‘복사골 영화관람’ 순천시 월등면

순천시 월등면과 월등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9일 월등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24 문화로 행복한 복사골 영화관람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문화로 행복한 복사골 영화관람 행사는 관내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문화 체험 기회가 부족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월등초 학생을 비롯해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 소재 영화관에서 최신영화를 관람하고 볼링 등 체육활동을 하는 시간까지 가지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산단, 출근길 안전 캠페인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여수시가 지난 10일 오전 국가산단 내 롯데GS화학(주) 증설공사 현장 출근길에서 ‘여수산단 출근길 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등 유관기관과 롯데GS화학(주) 및 롯데건설 대표 등이 참여했다.

특히 근로자 출근시간에 맞춰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된 캠페인에서 참여자들은 근로자에게 안전구호를 제창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며 사업장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에 힘썼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안전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한 산단 만들기’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자”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가 지난 10일 오전 국가산단 내 롯데GS화학(주) 증설공사 현장 출근길에서 ‘여수산단 출근길 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쳤다. 여수시 제공

여수 희망하우스 ‘26호’ 준공

㈜KCC 여천공장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주택 개보수

여수시가 ㈜KCC 여천공장과 함께 소라면 다문화가정에 ‘희망하우스 26호’를 준공하고 지난 9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장경기 ㈜KCC 여천공장 공장장, 김종진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용길 소라면장, 이영진 소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희망하우스 26호 대상자는 소라면 초등·중학생 형제가 있는 다문화가정으로, 고령의 할머니가 함께 거주하는 5



인가구다. 주택이 노후화되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외풍, 누수, 곰팡이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건강상의 위험성이 있어 시급히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KCC 여천공장이 2200만원을

기탁해 아동의 새로운 방 꾸미기, 창호·도배·장판·싱크대·화장실 타일 교체, 내·외벽 페인트, 처마 빗물받이 교체 등 전면적인 주택 개보수가 진행됐다.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이 주택개보수를 수행하고, 소라면 복지공동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민·관이 힘을 모았다.

장경기 ㈜KCC 여천공장 공장장은 “아동에게 희망을 선물하게 되어 기쁘다”며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을 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란다”며 “오늘 받은 따뜻한 마음을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서 보답해주기를 바란다”고 아동에게도 당부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 실시 순천 공무원 노·사

순천시와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지난 10일 취약계층 대상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노·사 화합과 신뢰를 다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순천시 공무원 노·사는 덕월동 소재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정리·정돈 및 청소 봉사를 실시하고 해당 가정을 격려했다.

문병희 순천시 지부장은 “노·사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순천시라는 조직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는 노조가 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와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향후에도 주기적 봉사활동을 통해 노·사 화합과 더불어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인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 ‘가치그린(Green) 한복 창작소’ 운영

보성군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지역 한복 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2024 지역 한복 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은 한복 문화 활성화 거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성군은 북내면에 위치한 ‘천연염색공예관’을 ‘가치그린(Green) 한복 창작소’로 탈바꿈해 운영할 계획이다.

‘천연염색공예관’은 한옥동, 염색동,

아외체험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옥동은 숙박시설로 한옥 체험을 비롯해 대·삼배 등 향토 자원의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염색동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천연 염색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가치그린(Green) 한복 창작소’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천연염색공예관’의 기존 장점을 살리고 한복 생산, 전시, 판매, 체험을 아우르는 융합형 공간을 위한 기본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10월17일부터 23일까지 한복 문화 주간 동안에는 한복 패션쇼와 전통혼례식을 선보이며 천연염색 규방 공예와 전통 자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또 한복 계승 교육과 초·중고 한복 문화 교육, 전통한복 기획 전시, 한복 재활용 공모전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담은 중요한 문화 자산”이라며 “‘가치그린(Green) 한복 창작소’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 잡아 주민들의 전통문화 인식을 높이고 한복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기림 기자

고흥군, 교육발전특구 주민공청회 지역산업 연계 교육 발전계획 발굴

고흥군은 고흥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 10일 군청 우주홀에서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공영민 고흥군수와 박경희 고흥교육장은 특구 공모 추진을 위해 양 기관 협력 증진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고흥교육발전특구의 추진전략과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공유와 교육 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원탁토론을 실시했다.

고흥군과 고흥교육지원청은 교육발전특구 모델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상시 가동하면서 지난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역량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스마트팜 혁신밸리, 드론센터 등 고흥군만의 특색 있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발전계획 발굴로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많은 교육주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흥군과 고흥교육지원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특구 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정주형 인재양성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공부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양질의 지역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정주형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시범지역 지정에 교육 주체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 신청은 내달 30일까지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교육 정책사업 특례 적용 및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양기림 기자